



일본서 '한국어 학습서' 10년 한 우물

재일교포 배정렬씨 "한류 영향 한국어 출판시장 호조"

“일본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한국어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열정과 문제의식이 있어요.”

일본 도쿄 치요다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하나프레스의 배정렬 대표(43·사진)가 한국어 관련 서적을 만들어온 지는 10년이 됐다. 배 대표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한국어학습 잡지인 '한국어저널'의 산파다.

어학전문출판사인 '아르쿠'에서 일하던 그는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00년 어느날 '한국어저널' 창간기획서를 냈다. 제대로 된 한국어학습 잡지가 없던 때, 반대하던 회사 간부들을 “창간호를 내서 적자가 나면 바로 폐간하겠다”면서 설득했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창간호를 냈다. 발간 당일 도쿄 시내 유명서점에서 직접 판촉에 나섰지만 겨우 10여부가 나갔다. 하지만 며칠 뒤 “난리가 났다.” '한국어저널'은 3만권 넘게 팔렸다.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잡지를 갈망하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류 붐'을 계기로 한국어를 배웠던 사람들이 중·상급 실력이 됐는데도 이들을 충족시켜주는 교재는 없었거든요.”

'한국어저널'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피천득의 '인연' 등을 담은 <대역 피천득 수필집>을 내기도 했던 배 대표는 2006년 독립했다. “좀더 폭넓게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처음 낸 책이 <KBS 한국어 표준발음과 낭독>이

있는데 6개월 만에 5000부가 팔릴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이후 <한국어 표현문형> <소리로 맛보는 한국어 명문 명작> 등을 선보였고 최근 <하루에 한 문장, 짧은 글로 읽는 한국어 리딩>을 출간했다. 다음달에는 <쉬운 한한사전>을 낼 예정이다.

배 대표는 일본에서의 한국어 관련 출판 시장 전망을 낙관했다.

“한류는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한류는 이미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았습니다. 한류 덕택에 지금은 한국어를 공부하겠다는 자식들을 말하는 부모들은 없어요. 한류의 열성팬인 주부들은 물론이고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재일 교포 3세로 조선학교와 조선대를 나온 배 대표는 또 다른 포부를 밝혔다.

“어배우 나카타니 미키를 인터뷰할 때 ‘어떤 한국 문학 작품을 읽으면 되냐’는 물음에 답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들은 한국에 많이 알려졌지만 반대로 한국 작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문학 작품이나 인문서를 소개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글·사진 김진우기자 jwkim@kyunghyang.com